



## 12월 18일(월) 16:30 (회의종료) 이후 사용

비고	* 모두말씀 별도배포 * 공동배포 : 문화체육관광부 포함 13개 부처	
담당	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문화체육정책과	과장 강동진, 사무관 김월중 (044-200-2328, 2329)
	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	과장 강정원, 사무관 장석인 (044-203-2811, 2812)
	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	과장 진승하, 사무관 김형욱 (044-215-4610, 4615)
	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	과장 권영민, 연구관 곽윤철 (044-203-6729, 6292)
	외교부 다자문화관광협력과	과장 송정혜, 사무관 백민지 (02-2100-7554, 7558)
	법무부 체류관리과	과장 이동휘, 사무관 류재석 (02-2110-4055, 4059)
	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	과장 황상규, 서기관 김지은 (02-2100-3890, 4205)
	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	과장 최봉순, 사무관 우현경 (044-201-1581, 1582)
	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	과장 김현숙, 사무관 송정아 (044-202-2980, 2982)
	환경부 생태서비스진흥과	과장 진명호, 사무관 송진성 (044-201-7510, 7513)
	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	과장 강주엽, 주무관 최용제 (044-201-3201, 3204)
	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	과장 오정우, 사무관 정범기 (044-200- 5250, 5251)
	문화재청 활용정책과	과장 이상걸, 사무관 조주성 (042-481-4740, 4741)
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	과장 하경수, 사무관 장영신 ( 042-481-4210, 1839)	

## 쉽표가 있는 삶, 사람이 있는 관광을 함께 만들겠습니다

- 12. 18.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,  
관계부처 합동 '관광진흥 기본계획' 발표 -

- 정부는 12월 18일(월) 오후 3시,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, 「관광진흥 기본계획」과 「평창 관광올림픽 추진계획」, 「국가관광전략회의 운영지침」 등 3개 안건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

\* (참석) 기재부·외교부·법무부·행안부·문체부·농식품부·복지부·해수부 장관, 교육부·환경부·국토부 차관, 국무조정실장, 문화재청장, 학계·업계 관계자 10명 등

□ 관광산업은 여러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산업으로서, 그 특성상 유관부처 간 정책협력이 필수적입니다.

-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광관련 범부처 회의체인 '국가관광 전략회의'를 신설하여 관광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.

## 안전 1: 관광진흥 기본계획 '쉽표가 있는 삶, 사람이 있는 관광'

□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유관부처의 정책을 종합한 첫 '관광진흥 기본계획'을 마련하고, 새 정부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.

□ 정부는 그동안의 양적·경제적 성과중심에서 국민, 지역주민, 방한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,

- 국민이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날 수 있고,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매력적인 콘텐츠와 편의를 제공하는 "쉽표가 있는 삶, 사람이 있는 관광"을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.

### <여행이 있는 일상>

□ 우선, 국민 누구나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, 계층별 관광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

- 단편적으로 시행되던 연령대별 지원 정책을 전 생애주기로 확대하고, 특성별 관광혜택이 포함된 '관광교통패스'를 도입하겠습니다.

- 장애인·임산부·고령층이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나눔관광을 확대하겠습니다.

□ 가족휴가 활성화를 위해 국민휴양형 펜션단지 조성 검토, 탄력적인 학사운행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.

### <관광으로 크는 지역>

□ 지역관광 발전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광두레, 관광형 마을기업, 농촌·생태관광 주민협의체를 활성화하고, 한국형 디엠오(DMO)\* 사업 등 지역 주도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.

\* 디엠오(DMO): 여러 부처, 민간 기관,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마케팅,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관광 마케팅 기관

-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지로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, 비무장지대(DMZ), 전통문화, 생태자원, 산림자원 등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.
  - 창덕궁 인정전, 파주장릉 등 미공개 유적지 등을 특별 개방하고,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지를 새로운 명소로 발굴하겠습니다.
  - 농촌관광사업 품질관리 강화, 산림관광 10대 명소 발굴, 테마형 어촌마을 조성 등 농산어촌 및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.
- 아울러 지역관광 품질 향상을 위해 공유민박업을 도입하고, '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' 구축 등 안내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.
- 관광객이 전국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역 교통거점과 관광지를 연계하고 짐보관·이동 서비스를 확대하여 편의를 높이겠습니다.

### <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>

- 주요국을 방한객 규모 등에 근거하여 주력·도약·신흥·고부가지장으로 구분하고, 맞춤형 마케팅 등 새로운 시장 관리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.
  - 도약시장(인니·베트남·대만·홍콩)과 신흥시장(인도 등)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, 관광객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할 예정입니다.
  - 중국 단체상품 고부가화, 전담여행사 관리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.
- 관광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방한시장을 고부가화하겠습니다.
  - 고급(럭셔리) 관광을 새롭게 육성해 한국관광의 품격을 높이고, 러시아·중동 등 핵심 고부가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겠습니다.
  - 한류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확대하고, 국제회의복합지구·집적시설 지정 등을 통해 마이스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.
  - 의료관광 진료과목을 확대하고, 유치지역을 중국·중동·러시아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, 건강·치유 중심의 웰니스관광을 확대해 나겠습니다.

- 크루즈 부두, 국제 여객터미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, 한·중·일 국제 마리나 코스를 만들어 연관 산업을 키워 나가겠습니다.

### <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>

- 관광콘텐츠·플랫폼 기업 등 사업유형별 맞춤형 지원, 표준계약서 제정 등 공정환경 조성을 비롯한 관광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- 관광벤처 보육센터를 중심으로 관광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, 관광공사 서울사옥을 관광 산·관·학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 대상을 다양화하고, 승합차 증개 서비스 활성화, 지역관광 규제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관광사업체 분류체계를 개편하고, 개발·진흥·사업관리 등이 혼재되어 있는 관광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.

### 안전 2: 평창관광올림픽 추진계획

- 정부는 홍보 강화, 수용태세 개선, 체험프로그램 운영, 올림픽 유산 활용의 방향으로 관광올림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올림픽 기간에 '평창 여행의 달'을 운영하고, 겨울스포츠관광을 테마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.
-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, 교통 편의를 높이고\*, 1330\*\* 올림픽 특별콜센터 설치 등을 통해 관광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- \* 올림픽 티켓 소지 중국인 대상 제한적 무비자 입국 허용, 투어버스 운영 등
- \* 교통·문화행사 등을 안내하는 올림픽 통합안내 콜센터(한·영·중·일)
- 축제, 공연, 전통문화, 한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날마다 체험할 거리가 있는 올림픽을 만들겠습니다.
- 장기적으로 경기장 시설, 개최도시 명성 등 유·무형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, 평창을 동계스포츠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.

※ (붙임) 1. 관광진흥 기본계획 2. 평창관광올림픽 추진계획